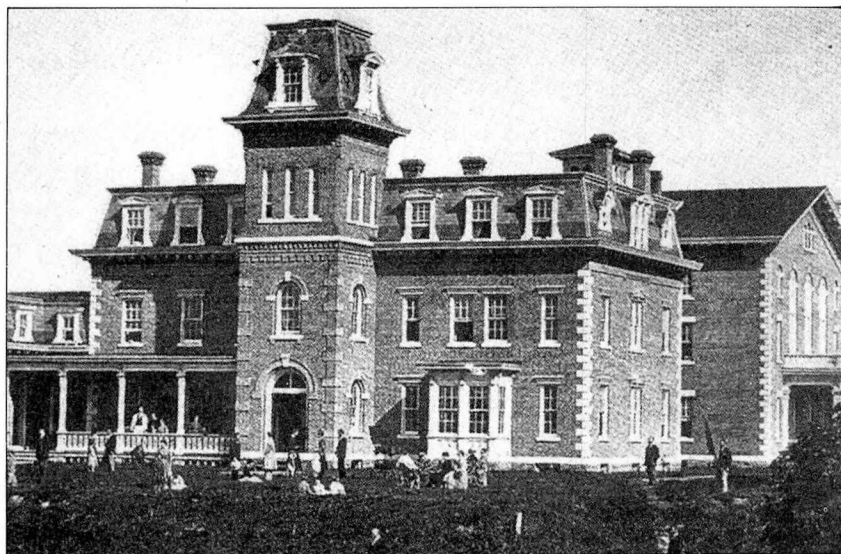


천년왕국 꿈꾼 한 신앙공동체의 실상

스펜스 클라우 지음 「오네이다 공동체의 탄생과 멸망」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19세기 미국의 뉴욕주 북부에서 유토피아공동체를 실험했던 '오네이다 커뮤니티'.

미국 뉴욕주 북쪽에 위치한 '오네이다 커뮤니티'(Oneida Community)는 1800년대에 명멸했던 40여개의 유토피아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프랑스 사회주의자였던 푸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느슨하게 조직된 것들이어서 그 생명도 매우 짧았다. 이에 반해 오네이다 공동체는 1848년에서 1880년까지 근 30년을 넘게 유지했고, 또 그 이념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이자 지도자였던 노이에스(John Humphrey Noyes)의 독특한 종교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단한 논란거리였는데도 오늘날은 이상할 정도로 잊혀져버린 오네이다 공동체가 스펜스 클라우(Spence Klaw)에 의해 책으로 묶어져 그 전모를 드러내었다. 제목은 「오네이다 공동체의 탄생과 멸망」(*Without Sin, The Life and Death of the Oneida Community*, Illustrated, 337 pp. New York: Allen Lane/The Penguin Press.). 저자는 이미 희귀해진 이 공동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역사상 최초로 오네이다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가장 특기할 점은 '복합혼'(complex marriage)으로 알려진 공동 성생활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버몬트 출생인 공동체의 설립자 노이에스는 1831년 한 종교 부흥회를 통하여 자신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완전주의(Perfectionism) 종파를 제창한다. 완전주의의 대가는 일부일체제는 오염된 제도이며 '집단적인 사랑 나누기'(group love)

야말로 천년왕국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종지를 따르는 근 300여명의 남녀 무리를 모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성생활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단계마다 변화를 요구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따라서 일부일체제의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이에스의 감독하에 끊임없이 사랑의 파트너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노이에스는 자신의 지위를 파트너를 짝지우는 주재자로 이용했다. 그는 나이 많은 신도들을 하나님에 가까운 신성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젊은 신도들은 신성한 늙은이들과 교접을 통하여 성스러운 즐거움을 맛보으로써 더불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춘기가 막 지난 소년 소녀들은 나이든 파트너들에게 배당되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또래와도 가끔은 잠자리를 같이 하였지만, 주로 50대나 60대의 노년층들이 그들의 파트너였다. 저자 클라우는 노이에스도 12살이나 13살 먹은 소녀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오네이다의 남성들은 모든 여성들과 '성스러운' 교접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두 세번씩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상례였다. 원치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오네이다 사람들은 중절성교(coitus interruptus) 방식을 썼다고 전한다. 간혹 파트너끼리 일부일체제식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짝은 공개적인 집단토론에 붙여져 엄격한 질책을 당했다. 아기 양육도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아

이를 갖고 싶은 짝들은 지도자에게 청원할 수 있고 또 분할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부모와 격리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그러나 서로 경쟁적인 섹스 파트너 사이에 소유욕과 질투심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복합혼'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들이 오네이다 공동체의 멸망을 부채질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이들은 원치않는 늙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는 것에 점차 싫증을 내게 되었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나는 젊은이가 늙은이와, 험심한 사람이 못생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과 배개를 같이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사랑은 정말로 자유로워야 하며 온 마음을 적시고 설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자 클라우가 지적하고 있듯 놀라운 사실은 오네이다가 금방 무너지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텼다는 점이다. 오네이다의 공동체적 삶은 그 자체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섹스의 다양함과 공동양육이 그 장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작업으로 창출되는 음악, 미술 그리고 시와 같은 문화 활동도 그 장점의 하나이다. 그리고 함께하는 게임과 스포츠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윤택케 해주는 요소였다. 노동은 즐거운 것이라는 모토 아래 분업적으로 처리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런 협동정신을 훌륭하게 경제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여러 기업을 설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식기류 제조회사였다. 이 회사는 아직도 남아서 세계 제일의 스텐레스 식기류(포크, 나이프 스푼 따위) 회사로 명망을 떨치고 있다.

저자는 오네이다 공동체와, 롱 아일랜드와 오하이오에 존재하는 자유연애공동체들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서보다는 세속적인 욕구에 기초하여 일부일체제를 금지하고 있다—과도 간략히 비교 고찰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네이다 공동체의 탄생과 멸망」은 그 자체로도 읽을 만한 것이지만 이보다 미국 문화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구실하고 있다. 저자는 공동체 내부의 활동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만큼이나 공동체 외부의 반응도 예의 주시하며 기술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곳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기묘한 호기심으로부터 근엄한 목회자들의 도덕적 분노에 이르기까지. 목자들이 이 공동체를 죽여 없애지 못해 절치부심했으리라는 것은 우리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분들의 집요한 노력은 끝내 성공을 거두는데 1879년 6월 오네이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였던 노이에스가 이 지방 목사의 '법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캐나다로 야반도주하고 만 것이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또 내부의 분란이 증폭되자 이 공동체는 공동성생활을 버리고 공동 기업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오늘날도 관광객들은 오네이다에 있는 웅장한 3층짜리 블록 건물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거기서 한때 희한한 방식으로 이 땅위에 천국을 건설하려 했던 많은 남녀들의 사진들도 감상할 수 있다.

홉스와 프로이드 중심축으로 삼은 「질서의 문제」

우리 사회과학계에 막스 베버 전문가로 낮이 익은 데니스 롱(Dennis Wrong)의 새로운 저작이 나왔다. 제목은 「질서의 문제」(*THE PROBLEM OF ORDER, What Unites and Divides Society*, 354 pp. New York: The Free Press).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어떻게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데 있다는 주장에 찬동한다면 조금은 딱딱할지 몰라도 당대의 석학이 정면으로 헤아려 본 고민의 길을 함께 추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데니스 롱의 「질서의 문제」에 초빙받아 논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토마스 홉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이 두 사상가는 데니스 롱이 제안한 주제에 대해 각기 자기 견해를 제시한다. 롱이 제안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주제에 대한 홉스와 프로이트의 대답은 물론 다르다.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 죽을 지도 모르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가 사회계약의 기초를 이

출판사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BESTSELLER

많은 출판사 업무를 혼자서 묵묵히 처리하는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투자하십시오!

BESTSELLER는 적은 투자로 두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판사 업무 전산화 이제 '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전산 개발 경력을 토대로 꼭 필요한 업무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도서관리, 서점관리, 회원관리, 저자관리, 입고, 매출, 수금, 반품, 증정 및 폐기, 신간배본, 도서재고, 세금 계산서, DM 발송, 현금출납, 도서별·서점별 매출현황, 서점별·날짜별 수금현황, 도서별·서점별 반품현황, 입고 현황, 도서별증정·폐기현황, 도서별·서점별 매출순위, 도서 수불장, 서점별 미수금현황·순위, 도서별 판매현황, 서점별 외상 매출원장 등등.

□ 이런 일들도 합니다.....

P C 판 매 안 내		
	80486DX2-50	80386DX40
H D D	270MB	
F D D	5.25", 3.5"	
모 니 터	삼성 Syncmaster (Green)	
R A M	4MB	
V G A	한글도깨비 V	
가 격	1,600,000	1,150,000

*신용카드 할부가능

▲정승소프트웨어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289-6
TEL : 859 - 7383~4 FAX : 863 - 2852

루게 만든다. 그리고 이 계약이 경찰행위로 대표되는 국가의 지배권력을 탄생시키며 또한 이 권력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 낸다. 한편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란 어차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상호 협조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 상호 협력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려고 들어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로간의 침해를 방지하는 기제로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질서다.

두 사상가 사이에 보이는 차이점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란 강력한 문화(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변치 않는 보편적인 소자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환경에 따라 인간의 본성은 변한다"라는 상대주의적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년전에 「미국사회학회지」에다 새로운 '독창적인' 사회학 이론들을 비판했던 저자 테니스 룡과 한 패다. 현재 뉴욕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룡과 마찬가지로 흡스와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성이란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창출해내는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마르크시스트와 일부 문화 이론가들의 입장과는 정반대편에서 있다. 흡스와 프로이드는 '인간 본성의 문화 변동설'은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한계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공간을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결정론'적 오류가 핵심이다. 더욱이 흡스와 프로이드에게 사회 질서란 영원히 위태로운 것이다. 다시말해 질서를 획득하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운 것이다.

「질서의 문제」에서 우선 저자는 사회질서와 무질서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역사와 정치사상 그리고 현대 사회학 이론들로부터 광범하게 수집, 정리,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흡스와 프로이드의 핵심적인 관점을 채용하여, 지난 1961년도에 학계에 제출했던 논문을 보강, 세련화시켜 최근 사상계의 문화상대주의적 경향에 강력한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오늘날 풍미하고 있는 위태롭고 시대착오적인 낙관주의로 가득찬 정치사상류보다 흡스와 프로이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지적은 옳다. 흡스의 주장은 요컨대 지배권(질서의 제작자)이 위태롭거나 약한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정글로 이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주장은

인간의 문명이란 질서의 대가로 억압이라는 값을 치르며 나아가는 것인데, 질서를 위한 억압은 조절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스나 프로이드는 둘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사안인 사회혼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좋은 지침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룡이 지적하고 있듯 흡스는 사회 집단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다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실로 오늘날 사회혼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이질적인 문화사이에, 그리고 적대적인 민족 간에 벌어지는 사회의 분열과 불협화에 있다.

프로이드는 흡스에 비해서 인간의 잔인성과 지배욕 그리고 타인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경향이 인간 증오의 심층적 원천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보다 '현실주의적' 사상이었다. 프로이드가 바라는 세계는—오늘날 보기에는 구태의연하고 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사람들이 협동의 이익을 '이성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본능적인 공격욕구를 억제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세계다.

아마 흡스든 프로이드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질서의 해체위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체의 비관주의에도 기인하겠지만 그보다는 각기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였다는 한계—흡스는 서구 지성사에서 최초의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자였으며, 프로이드는 아마 마지막 자유주의자였다고 여겨진다—때문인가 생각된다. 두 사상가들은 분열적인 사회 갈등의 원천으로 구실하는 문화적 차이는 20세기 후반쯤 흥기할 보편적인 문명체계속에서 종내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이런 전망은 기본적으로 서양 사상사의 악폐인 보편주의의 한계를 '비관주의자'인 흡스와 프로이드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실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려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경향은 사회 분열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소자임도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